

Contents



통계로 보는 국제물류

1. 세계 컨테이너 운송시장, 2015년 이후부터 회복세 진행 중



이슈페이퍼

1. 아시아 태평양 및 인도 물류시장의 성장과 전망



물류정책·산업동향

1. DP World, 제벨 알리항 3터미널을 세계 최대 반자동화 터미널로 개발
2. 미국 서부 항만, 수입 컨테이너 물동량 6% 증가
3. 메가 컨테이너 선박, 함부르크 항만 등 북유럽 기항 확대
4. Hapaq-Lloyd, 공컨테이너 재사용 관리 서비스 제공
5. 러시아철도청, TransContainer사(社) 지분 매각 계획

명사 스피치

“...우리의 미래는 바다에 달려 있으며, 연간 생산가치가 2조 5,000억 달러에 달하는 바다에서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찾아야 할 때이다.”

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
(2017. 10. 17. / 부산일보)





통계로 보는 국제물류

세계 컨테이너 운송시장, 2015년 이후부터 회복세 진행 중

세계 컨테이너 운송시장 성장률(CAGR) 변화 추이 (2005-2018)



자료 : www.statista.com.

- 2005년 이후 세계 컨테이너 운송시장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나, 2010년 이후 5년간 성장률은 이전 5년 대비 감소한 후 2015년 이후부터 다시 반등할 것으로 예상됨
 - 2005~2010년 간 약 5.5%의 성장률을 보인 반면, 2010년 이후 3.1%로 성장세가 다소 주춤했으나 2015년 이후 소폭 상승한 4.4%를 기록해 회복세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망됨
- 지난 10년(2005~2015) 동안 국제 해상운송에서 컨테이너 운송 비중이 10% 이상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의 위축 등으로 시장 규모는 그에 걸맞게 성장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
 - 2015년의 경우, 유럽과 아프리카 지역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음에도 미국의 수요 증가가 전 세계 컨테이너 시장을 견인한 것으로 파악됨

참고자료 : <https://www.statista.com/statistics/253931/global-container-market-demand-growth>, 2017.10.23.

김동환 연구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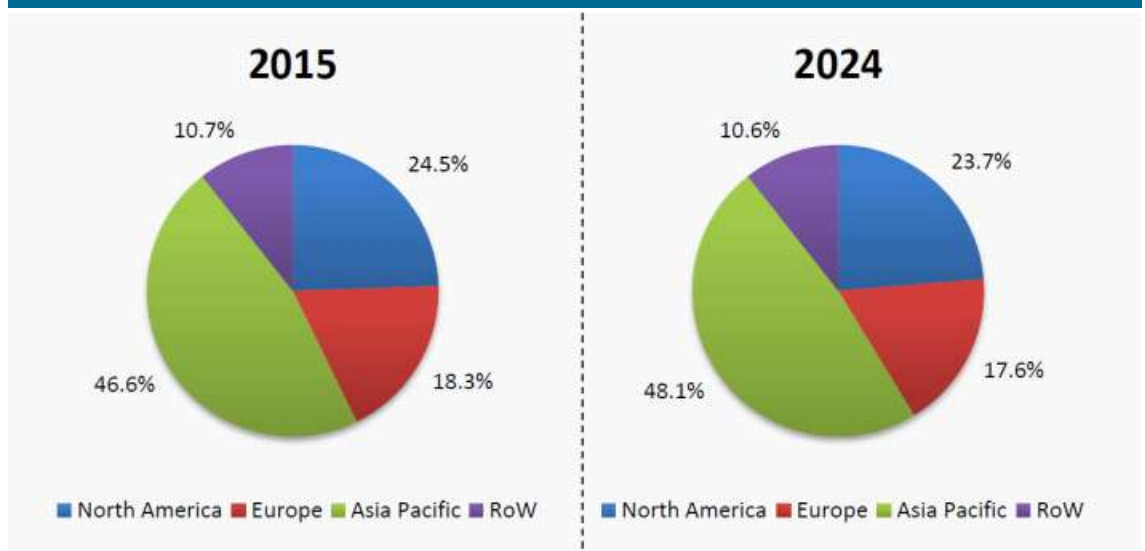
051-797-4913, kdong@kmi.re.kr

이슈페이퍼

아시아 태평양 및 인도 물류시장의 성장과 전망

- 글로벌 물류시장의 성장은 글로벌 경제성장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으며, 최근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급격한 물류시장 성장이 글로벌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있음
- Transparency Market Research사의 'Global Logistics Market'에 따르면 2015년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물류시장은 세계 물류시장의 46.6%를 차지하고 있으며, 2024년 48.1%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됨
 - 이는 중국이라는 대형 물류시장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 성장에 큰 기여를 하고 있고, 최근 글로벌 물류 기업들이 차기 물류성장 유망 국가인 인도, 태국 등 아시아 지역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됨

2015년 세계 물류시장 점유율 및 2024년 예측치



자료 : Global Logistics Market

- 중국, 인도, 싱가포르, 인도네시아, 일본 등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물류시장은 향후 더욱 발전될 것으로 전망됨
 - 아시아 태평양 지역과 유럽 및 미주 지역 간 교역량은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며, 이처럼 증가하는 물동량을 바탕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물류시장은 더욱 발전될 것으로 전망됨
 - 또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과 아프리카 지역 간 교역량이 급격히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, 특히 중국의 경우 아프리카와의 교역량이 미국, 유럽 지역과의 교역량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됨
 - 아시아 국가 간 교역량 역시 중국, 인도와 같은 거대한 물류시장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, 향후 아시아 국가의 물류기술 성장과 함께 아시아 물류시장의 발전 속도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됨

- 최근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이머징마켓(Emerging Market)¹⁾은 높은 GDP 성장률을 바탕으로 향후 거대한 물류시장으로 성장이 예상되고 있으며, 많은 글로벌 물류기업들이 이 지역의 투자를 위해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
- 2015년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물류시장 매출액은 3조 8,108억 달러, 물동량은 231억 톤을 기록함
 - 2015~2024년 기간 동안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매출액 및 물동량은 각각 연평균 증가율 7.8%, 5.6%로 성장하여 2024년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물류시장 매출액 및 물동량은 각각 7조 4,625억, 377억 톤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됨

아시아 태평양 물류시장 매출액 및 물동량 예측 추이(2015-2024)

단위: 10억 US달러, 10억 톤



자료 : Global Logistics Market

- 2015년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도로운송 부문 매출액은 1조 7,707억 달러, 물동량은 28억 톤을 기록했으며, 각각 연평균 증가율 7.4%, 6.2%로 성장해 2024년 3조 3,350억 달러, 49억 톤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됨
 - 이 밖에 해상, 철도, 항공 운송부문 매출액은 각각 7,511억, 1조 1,055억, 1,834억 달러를 기록했고, 물동량은 각각 115억, 39.3억, 48.7억 톤을 기록함
 - 특히 항공 운송부문 매출액의 경우, 2016~2024년 연평균증가율이 15.9%로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

1) 개발도상국 가운데 상대적으로 경제성장률이 높고, 산업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국가의 시장

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운송 수단별 물류시장 규모 전망

단위: 10억 US달러, 10억 톤

		2015	2016	2017	2018	2019	2020	2021	2022	2023	2024	CAGR 2016-2024(%)
도로운송	매출	1770.71	1885.67	2011.86	2150.49	2302.96	2470.83	2655.85	2860.02	3085.59	3335.08	7.4%
	물동량	2.85	3.02	3.21	3.40	3.61	3.83	4.07	4.33	4.61	4.90	6.2%
해상운송	매출	751.18	810.08	875.24	947.40	1027.43	1116.28	1215.07	1325.06	1447.68	1584.56	8.7%
	물동량	11.50	12.13	12.75	13.42	14.13	14.89	15.70	16.56	17.49	18.47	5.4%
철도운송	매출	1105.53	1167.74	1226.82	1295.48	1370.14	1451.39	1539.85	1636.23	1741.31	1852.83	5.9%
	물동량	3.93	4.14	4.35	4.57	4.81	5.06	5.33	5.61	5.92	6.24	5.3%
항공운송	매출	183.45	212.39	253.55	295.29	342.32	395.38	455.33	523.13	599.91	690.08	15.9%
	물동량	4.87	5.16	5.45	5.76	6.09	6.45	6.83	7.24	7.68	8.14	5.9%
합계	매출	3810.87	4075.88	4367.47	4688.66	5042.85	5433.88	5866.11	6344.44	6874.48	7462.55	7.9%
	물동량	23.15	24.45	25.76	27.16	28.64	30.23	31.93	33.75	35.69	37.76	5.6%

자료 : Global Logistics Market

- 아시아 태평양 지역 중 특히 인도는 정부와 물류기업 모두가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으며, 가장 유망한 시장 중 하나로 평가됨
 - 인도의 물류 인프라는 경제성장, 세계화, 정부의 규제 완화, 대규모의 투자 등을 바탕으로 급격히 성장될 것으로 예측됨
- 현재, 인도 물류시장에는 FedEx, UPS, DHL, Kintetsu World EXPRESS 등 여러 글로벌 물류기업들이 이미 진출해 투자를 하고 있음
 - 이밖에 XPO, YAMATO, C.H. Robinson 등의 글로벌 물류기업 또한 인도 물류시장에 집중하고 있음
- 인도는 세계 물류시장 중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이며 2015년 인도의 물류 시장 매출액은 8,875억 달러, 물동량은 56억 톤을 기록함
 - 인도는 2015~2024년 동안 7.8%의 연평균 성장률을 기록하여 2024년 매출액 1조 7,245억 달러, 물동량 90억 톤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됨

인도 물류시장 매출액 및 물동량 예측 추이(2015-2024)

단위: 10억 US달러, 10억 톤



자료 : Global Logistics Market

- 인도 물류시장은 향후 5년간 매년 15%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물류산업이 인도 경제를 이끌어 나갈 것으로 전망됨
 - 인도는 낙후된 인프라 여건에도 불구하고 운송업, 창고업, 통관업 등 물류시장의 성장률이 GDP 성장률과 비교해 1.5~2배 높음
 - 인도 소매유통시장은 세계 5위 수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, 2020년 1조 달러로 성장될 것으로 예측됨
 - 이러한 결과를 비추어 볼 때, 인도 물류시장의 성장가능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되며 향후 세계 물류시장에서 상당한 점유율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됨
- 우리나라 물류기업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변화하는 물류환경과 성장 가능성을 면밀히 분석해 효과적인 투자 및 진출 전략 마련이 필요함
 - 특히 현지 물류기업 인수 또는 글로벌 물류기업과의 전략적 협력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, 나아가 우리나라 해운 및 제조 기업과의 동반 진출 등 협력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

■ 참고자료 : Transparency Market Research, *Logistics Market: Global Industry Analysis, Size, Share, Growth, Trends and Forecast, 2016-2024*, 2017.

김병주 연구원

051-797-4784, bjkim17@kmi.re.kr



DP World, 제벨 알리항 3터미널을 세계 최대 반자동화 터미널로 개발

- DP World는 두바이 제벨 알리항(Port of Jebel Ali) 3터미널의 연간 처리능력을 150만 TEU 확대하기 위한 개발 계획을 수립함
 - 이로써 3터미널은 총 400만 TEU 처리능력을 가진 세계에서 가장 큰 반자동화 터미널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, 또한 선박 초대형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7기의 크레인 높이 확장 계획도 수립함
- DP World의 최고경영자(술탄 아흐메드 빈 술라옴)에 따르면, 3터미널의 처리능력 확대는 항만의 활용도 증대와 물동량 회복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것으로, 특히 두바이 엑스포 2020 개최를 지원하기 위함임을 밝힘
 - 제벨 알리항의 처리능력과 생산성을 지속 향상시키는 것은 고객 서비스 및 항만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이며, 또한 대형 선단을 유치함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것임
 - 최근 아랍에미리트의 항만 물동량은 다시 증가하는 추세이며, 향후 두바이 엑스포 2020 및 시장 개방 확대 등이 시장 성장을 이끌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
- 또한 DP World는 4터미널 개발을 2018년에 재개할 것으로 보임
 - 2015년, DP World는 제벨 알리항에 네 번째(4) 터미널을 개발하여 310만 TEU 처리능력을 추가함으로써 2018년까지 연간처리능력 2,210만 TEU를 확보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음
 - 하지만 컨테이너 해운시장의 약세로 인해 DP World는 지난 2016년 4터미널의 공사를 보류함
 - 안벽 길이 1,200m, 안벽 수심 18m로 계획된 4터미널은 총 16억 달러가 투자되어 13기의 원격 조종 컨테이너크레인과 110기의 크레인을 운영하는 최첨단 컨테이너터미널로 개발할 예정임

■ 참고자료 : https://www.porttechnology.org/news/dpw_to_develop_jebel_ali_t3_into_top_semi_auto_terminal/, 2017.10.20. / https://www.porttechnology.org/news/dp_worlds_jebel_ali_gearing_up_for_t4/, 2017.7.6.

강무홍 전문연구원

051-797-4684, mkang@kmi.re.kr



미국 서부 항만, 수입 컨테이너 물동량 6% 증가

- 올해 8월 미국 서부 연안항만의 수입 컨테이너 물동량이 전년 동월 대비 6%(55,808 TEU)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
- Pacific Merchant Shipping Association(PMSA) 데이터에 따르면 LA, 롱비치(Long Beach), 오클랜드(Oakland), 타코마(Tacoma) 및 시애틀(Seattle) 항만 모두 수입 물동량이 증가함
 - 롱비치 항만의 수입 물동량은 작년 한진해운 사태에서 회복하며 29.5%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함
 - 또한, 오클랜드 항만의 수입 물동량은 12.6%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
 - 하지만 롱비치 및 오클랜드 항만의 높은 성장세에도 불구하고, 시애틀 및 타코마 항만의 상대적으로 낮은 성장률 때문에 전체적인 성장세가 억제된 것으로 나타남
- 국경 북쪽에 위치한 밴쿠버(Vancouver) 및 프린스 루퍼트(Prince Rupert) 항만은 총 9.5%, 국경 남쪽에 위치한 만자닐로(Manzanillo) 및 라자로 카데나스(Lazaro Cardenas) 항만은 총 7.8%의 성장률을 기록함
- 올 여름 미국을 강타한 허리케인 하비(Harvey)의 영향으로 일부 항만이 폐쇄됐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미국 항만의 수입 물동량이 전년 동월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
- 하지만, 미국 서부 연안항만의 수입 컨테이너 물동량은 증가한 반면 수출 컨테이너 물동량은 전년 동월대비 10.1%(48,092 TEU)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
 - 미 서부 연안의 5대 항만 중 LA 항만만이 유일하게 수출물동량 4%(6,192 TEU)라는 성장세를 기록함
 - 반면 동부 항만의 경우 필라델피아 항만은 31.5%, 마이애미 항만은 24%의 성장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남
- 미국 서부 항만 수출 물동량 중 가장 많은 물동량이 향하는 국가는 중국으로서 지난해 37.5%의 점유율에서 올 8월 33.7%로 감소함
 - 일본은 12.2%(전년도 10.8%에서 증가)의 점유율로 2위를 차지했으며, 한국은 10.0%의 점유율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남

■ 참고자료 : porttechnology.org/news/us-west-coast-inbound-container-traffic-grows_6, 2017. 10.24.

이기열 전문연구원

051-797-4670, kylee@kmi.re.kr

메가 컨테이너 선박, 함부르크 항만 등 북유럽 기항 확대

- 함부르크항은 지난 2년 동안 18,000TEU급 이상의 메가 '컨'선 기항 횟수가 급격히 증가했음
 - '17년 상반기 14,000TEU~17,999TEU급 '컨'선의 함부르크항 기항 횟수는 '15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증가했고, 18,000TEU급 이상 메가 '컨'선의 기항 횟수는 54회로 '15년 동기 대비 5배 이상 증가함
- 이에 대비하여 최근 함부르크항 HHLA의 Tollerort 터미널은 18,000TEU급 이상 메가 '컨'선 화물처리를 위한 신규 갠트리 크레인 5대를 배치함
 - 신규 배치된 크레인 5기는 지난 주말 COSCO의 13,400TEU급 '컨'선 화물 처리를 통하여, 향후 아시아~북유럽 항로에서 투입 증가가 예상되는 18,000급 이상의 메가 '컨'선 화물처리에 대비한 준비 작업을 진행하였음
 - HHLA 컨테이너터미널은 메가 '컨'선의 기항에 대비하여 지속적으로 터미널 장비 투자를 진행해 왔으며, 그 결과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 '컨'선 화물을 처리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었다고 밝힘

“함부르크항 HHLA Tollerort 컨테이너터미널” 갠트리 크레인의 화물하역 작업 전경



자료 : JOC.com(2017. 9.)

- 한편, Sealntel은 향후 아시아~유럽 항로에서 메가 '컨'선의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확대 될 것으로 예상함
 - 특히 아시아~유럽 항로에서 14,000TEU급 이상 '컨'선의 주당 항차(서비스 횟수)는 작년 5%에서 올해 45%로 9배 증가하였고, 2020년까지 인도 예정인 선박 척수를 고려할 경우 향후 아시아~유럽 항로에서 14,000TEU급 이상의 메가 '컨'선 점유율이 약 83%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함

■ 참고자료 : https://www.joc.com/maritime-news/ships-shipbuilding/mitsubishi-heavy-industry/mega-ships-dominating-north-europe-port-calls_20171023.html, 2017.10.23.

이주원 연구원

051-797-4667, peterlee@kmi.re.kr



Hapag-Lloyd, 공컨테이너 재사용 관리 서비스 제공

- 글로벌 컨테이너 해운기업 중 하나인 Hapag-Lloyd(이하 “하팍로이드”라고 함)는 영국 내 트럭 및 운송업체에 수출화물 운송을 위한 수입 컨테이너의 재사용 관리 서비스를 제공함
 - 하팍로이드는 공컨테이너 관리 회사인 Avantida(이하 “아반티다”라고 함)와 협력하여 공컨테이너 재사용을 위한 컨테이너 관리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을 영국의 트럭 및 운송업체에 제공하기로 합의함
 - 벨기에에 본사를 둔 아반티다는 원양선사, 육상운송사, 터미널 운영사, 창고업체 등을 대상으로 디지털화된 컨테이너의 재사용과 재배치를 지원하는 어플리케이션을 공급하는 업체임
 - 하팍로이드는 원양 컨테이너 해운기업 중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하는 최초의 선사임
- 운송업체들은 아반티다에서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수입되어 화주에게 운송된 컨테이너(공컨테이너)를 항만 또는 공컨테이너 장치장으로 반환하는 대신 곧바로 수출품목을 적재할 수 있음
 - 이로써 운송업체들은 공컨테이너를 반환하면서 추가 발생하는 운송시간과 연료를 절약할 수 있고, 하팍로이드는 주요 장비인 컨테이너 박스 재고 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밝힘
- 한편, 아반티다의 CEO인 루크 데 클러크(Luc De Clerk)씨는 “이미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450,000개의 컨테이너가 수입 운송 직후 재사용되었으며, 서비스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.”고 밝힘
- 또한 하팍로이드의 운영 담당 이사인 앤드류 앨런(Andrew Allen)씨는 “아반티다는 컨테이너 재사용 요청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해주며, 운송업체에 요청 프로세스를 단순화하고 응답속도를 높이는 플랫폼을 우리에게 제공한다.”고 밝힘

■ 참고자료 : https://www.porttechnology.org/news/hapag_lloyd_to_re_use_containers_in_uk, 2017.10.23.

김영훈 연구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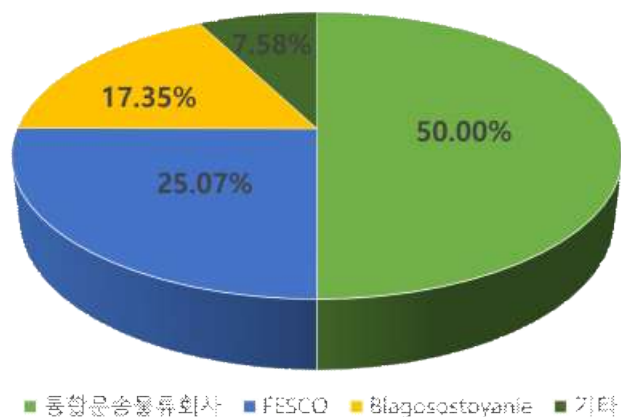
051-797-4668, kyh@kmi.re.kr



러시아철도청, TransContainer사(社) 지분 매각 계획

- 러시아 철도청은 신규 철도물류회사 설립을 목적으로 보유 중인 Transcontainer사 지분을 매각할 계획이라고 밝힘
 - 신규 철도물류회사는 컨테이너와 열차를 소유한 독립법인 지위로 설립될 예정임
- 숨마그룹(Summa Group) 이사회 회장(지아부지나 마고메도바)은 TransContainer의 지분 51% 매입 의사를 밝혔음
 - 그 외 Global Ports, Delo, UCL Holding사 등이 지분 공개 입찰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힘
- TransContainer사는 시베리아횡단철도(TSR) 컨테이너 운송을 전문으로 하는 러시아 최대 철도 물류기업임
 - 러시아 철도청의 자회사로서 2006년 3월에 개방형 주식회사인 독립 법인으로 설립되었음
 - 2014년 11월, 카자흐스탄, 벨라루스 철도공사가 참여하는 합작 주식회사 형태(JSC)의 United Transportation & Logistics Company(UTLC)사를 설립함과 동시에,
 - 러시아 철도청이 가지고 있던 TransContainer사의 지분 50%+2주를 UTLC에 양도했음
 - 그 외 FESCO가 25.07%, Blagosostoyanie(러시아철도청, TransCreditBank, Rosproajel 등이 설립한 비국가연금기금)이 17.35% 지분을 소유하고 있음

TransContainer사 지분 구조



자료: <http://www.trcont.ru/ru/investoram/akcii/struktura-kapitala/>

참고자료 : http://logirus.ru/news/transport/rzhd_prodst_-transkonteyner-_chtoby_sozdat_logisticheskogo_klona.html?sphrase_id=112415, 2017.10.24.

김엄지 연구원

051-797-4776, umjikim@kmi.re.kr